

# 평화적 '빛의 혁명' 시민들...노벨평화상 후보 오를만하네



h12tm 5시간  
이런 시민들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모두가 노벨 평화상 감이죠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는  
자극심과 연대를 드러내는 반응이 이어졌다.  
(X(구 트위터)·스레드 캡처)

## '대한민국 시민'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세계 정치학자들 추천 공격서 보니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폭력 시민 행동으로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시민들은 무력 충돌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인 '평화'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명단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정치학자들은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전체(Citizen Collective)'를 2026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김 교수를 비롯해 세계정치학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정치학 교수 등 4명이 추천했다.

광주일보가 김 교수 등이 노벨위원회에 제출한 '공격서'를 받아 살펴보니, 추천인들은 불법 계엄 시도를 저지한 시민 행동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위기를 탄압이나 무력 충돌 없이 비폭력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경험이 알프레드 노벨이 제시한 평화 개념과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공격서는 계엄 선포 직후 전국적 연대에 나서 엄격한 비폭력 원칙 아래 집회와 시위를 이어간 시민들의 저항 운동이 담겼다. 의회·법원과 협력을 통해 불법 권력에 맞섰고 공무원·군경의 위헌 명령 거부를 촉구하는 캠페인과 헌법 소송·공법 교육도 병행했다. 디지털 소통과 예술·종교 기반 참여는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비폭력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격서에는 "빛의 혁명"은 불법 권력에 대한 비폭력 저항과 장기적 구조 개혁의 헌신을 결합한 평화의 성숙한 구현"이라며 "수상이 이뤄진다면 수백만 시민의 용기를 기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심

전국적 연대로 불법 권력에 맞서  
광주서도 20여차례 대규모 집회  
비폭력 시민들 글로벌 모범사례

광주정신으로 민주주의 수호 공치  
"위인 한명 아닌 '우리' 이름 감동  
수상엔 이력서에 노벨상 경력 쓸까"

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세계에 실질적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인명 피해나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와 헌법재판 절차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위기가 해소된 점은 시민 행동의 결과다.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는 자긍심과 연대를 드러내는 반응이 이어졌다. "국회로 달려간 보람이 있다", "위인 한명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라 감동"이라는 글부터 "총과 칼 없이 헌정 위기를 넘긴 장면을 세계가 봤다"는 평가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수상하면 이력서에 노벨상 경력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화제가 됐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다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의미가 남다르겠다"는 기대감도 제기됐다.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계기로 광주의 상징적 역할도 주목되고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를 통해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고 했던 것처럼, 44년 전 5·18 광주의 정신이



지난 2024년 12월 7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촛불집회에서 응원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계엄군 장갑차를 막아서는 시민들의 저항 의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다.

광주에서도 지역 110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비상행동은 총 20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1차 집회 1000여명 수준이던 참여 인원은 점차 늘어 국회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 12월 14일 6차 집회에는 4만여명의 인파가 모이기도 했다.

시민들은 자발적 후원을 통해 핫팩·생수·보온덮개·피켓 등을 지원했고, 금남로 일대 상가 등지에서

는 선결제와 무료 간식 나눔 등 연대의 손길이 이어졌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재치 있는 문구의 피켓·응원봉 집회 문화가 확산하는 등 청년층이 과거와는 다른 평화적 집회 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맞물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항거 경험이 오늘날 민주주의 수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 군수 출마 예정자 관련 허위문자 유포 의혹 완도경찰, 전남도의원 배우자 검찰에 송치

완도군수 출마 예정자를 둘러싼 허위 문자 유포 의혹과 관련해 전남도의원 배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완도경찰은 지난달 전남도의원 배우자 50대 여성 A씨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지인 등에게 "전남도의회 부의장 B씨가 완도군청과 함께 향만공사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B씨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를 전달한 게 아니라

지인이 휴대전화에서 직접 옮겨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B씨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달 재송치했다.

한편 B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완도군수 후보자로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완도=정은주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광주지역 식당에 기부행위 혐의 한덕수 다음달 첫 재판

대선을 앞두고 광주 지역 식당에 금품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

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해프는식당'에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 금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해당 가게에 식재료를 공급해 주는 인근 가게에 사비로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격려금

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에 후원한 뒤 보름 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경찰은 한 전 총리가 대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광주지법 형사12부에 배당됐으나,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으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지검, 분실 비트코인 320개 전량 회수

"최종 이체된 지갑 특정해 회수"  
분실 관련 입건된 내부자는 없어

광주지검이 범죄 압수물로 보관하다 분실한 300억원대 비트코인을 되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최근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88개(현재 시세 318억원)를 전량 회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다"며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를 받도록 설정해 해당 지갑을 실시간 점검하고,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차단한 뒤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 분실 내지는 탈취와 관련해 입건된 내부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검찰 수사관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과정에서 범죄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

코인 320.88개를 탈취당했다. 이들은 USB 형태의 전자지갑(콜드 월렛)에 보관된 비트코인 잔액을 확인하려고 인터넷으로 잔액 조회를 시도하다가,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비트코인을 분실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점검 과정에서 전자지갑의 실물만 관리하고 잔액을 확인하지 않다가, 지난달에야 분실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관 등 내부자에 대해 자체 검찰을 벌이는 등 구체적인 분실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74**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함유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